

오르기만 하는 물가...장보기 겁난다

과일 등 신선식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장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식유류의 가격 상승세는 진정됐지만, 채소류나 과일류 등 신선식품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1.9% 올랐다. 소비자물가지수는 1월 2.0%, 2월 1.9%, 3월 2.2%, 4월 1.9%, 5월 2.0%에 이어 지난달까지 2% 안팎의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물가 상승은 어류나 조개류, 채소, 과일 등 신선식품이 주도했다. 신선식품 지수는 1년 전보다 10.5% 상승했다. 특히 신선과실지수는 21.4%나 급등해 2011년 3월 23.3% 이후 6년 3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2015년을 100으로 봤을 때 작년 6월 지수는 97.17이었다가 지난달은 107.36을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10% 이상 오르지 않았지만, 지수상으로는 2015년 평균보다 7.36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식유류는 작년보다 2.8% 상승하는 데

6월 1.9% 올라 6개월 연속 2%대 상승 신선식품 11%·과일 21%...6년래 최고



그저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축소됐다.

농·축·수산물은 7.6% 올라 전체 물가를 0.59%포인트 상승시켰다. 올해 1월 8.5% 이후 최대 상승 폭이었다.

농산물은 7.0%, 축산물은 8.6%, 수산물은 7.8% 올랐다. 달걀 69.3%, 오징어 62.6%, 감자 35.6%, 토마토 29.3%, 수박 27.3% 각각 상승했다.

자동차용 LPG(10.6%), 도시가스(10.1%)는 상승 폭이 컸지만, 휘발유(1.6%), 경유(2.2%) 등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

개인서비스는 1년 전보다 2.3% 올라

2015년 12월 2.2% 이후 최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전체 물가를 0.74%포인트 끌어 올리는 등 물가 상승 기여도 측면에선 영향이 미미하지 않았다.

보험서비스료(19.5%)는 많이 올랐지만, 해의단체여행비(-9.1%), 골프연습장 이용료(-1.6%) 등은 떨어졌다.

농산물 및 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4%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1.5% 올랐다. 식품 등을 포함한 생활물가지수는 2.3% 올랐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7~9월 전기 요금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조류 인플루엔자(AI) 이후 국내 생산기반 복구 지연, 가뭄 등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현정중심 범정부 물가관리체계를 운영하고 품목별 수급·가격 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생활필점 품목에 대해 추가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 지역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광주가 102.84로 전월대비 0.1% 하락했고, 전남 동월대비 2.1% 상승했으며 전남은 102.73으로 전월대비 0.3% 하락한 반면 전년 동월대비는 1.9% 상승했다.

/김대성기자 bigkim@연합뉴스

광주·전남 中企 활용

장비·인력 안내책자 발간

광주·전남에서 중소기업 활용도가 높은 지역 14개 연구기관의 연구장비와 기업 지원 내용, 기술 전문가 등을 소개한 책자가 발간됐다.

4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진형)에 따르면 광주·전남중소기업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책자 500권을 제작해 지역 중소기업, 연구기관, 민원인 등에 배포한다.

중소기업들이 자체 구매가 힘든 고가의 전문 연구장비와 관련 분야 전문 인력 등을 책자에 담아 지역 기업의 활용도를 높여주는 것이 책자발간의 취지다.

또 중소기업이 겪을 수 있는 기술개발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기술개발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김치냉장고 덤채 광주서 생산합니다” 4일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대유위니아 광주공장에서 열린 이전 기념식에서 윤장현 광주시장과 라연근 대유그룹 총괄사장 등 주요 내외빈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안청동 신규 공장은 대지 3만3058㎡, 연면적 2만4240㎡로 ‘덤채(스탠드형)’ 월 4만대, ‘프라우드’ 월 5000대 등 연간 최대 60만대의 대형 가전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대유위니아 제공>

한전·LG CNS, 2300억원 美 태양광발전 수주

2019년 12월부터 25년간 3900억 전력 수입·920억 배당 수익

한국전력과 LG CNS가 2300억원 규모의 미국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주했다.

한전·LG CNS 컨소시엄(한전 사장 조현익, LG CNS 사장 김영섭)은 미국 광전력청(GPA)에서 국제 경쟁입찰로 시행한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

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광 북동쪽 팅길라오 지역에서 태양광 60MW, ESS 420MWh를 건설하고 25년간 운영하는 BOO(Build·Own·Operate) 방식의 사업이다. BOO는 컨소시엄이 건설 후 소유권을 갖고 직접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총사업비는 약 2억 달러(약 23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전은 지난해 6월 LG CNS와 신재생·신사업 추진 협약을 맺고 입찰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기술입찰, 지난 1월 가격입찰을 거쳐 지난 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컨소시엄은 전력판매계약 등 주요 계약을 체결하고 발전소 건설에 들어가기로 했다.

안공되면 오는 2019년 12월부터 25년간 3억4000만 달러(약 3900억원) 규모의 전력판매수입과 8000만 달러(약 920억원)의 배당수익을 올릴 것으로 컨소시엄측은 기대했다.

한전 관계자는 “에너지 신사업 분야의 강국인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신정부의 핵심정책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및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380.52 (-13.96)
- ↑ 금리 (국고채 3년) 1.74% (+0.02)
- ↓ 코스닥 656.19 (-4.78)
- ↑ 환율 (USD) 1150.60원 (+3.70)



지난 29일 유·스퀘어 2층 키즈파크를 단체 방문한 살레시오 초등학교 학생들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유·스퀘어 제공>

유·스퀘어 키즈파크 인기몰이

장난감·놀이기구 등 체험...초등생 단체 이용객 급증

유·스퀘어 2층에 마련된 어린이들을 위한 실내 공간이 터미널을 찾는 이용객들은 물론 지역 어린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4일 영풍문고에 따르면 최근 유·스퀘어 키즈파크에 왕곡초와 금당초, 농성초, 살레시오초 등에서 100여명의 어린이들이 찾는 등 단체 이용객이 부쩍 늘었다.

오는 12일에는 전남 신안에 있는 안좌초 학생 36명이 방문을 예약하기도 했다.

키즈파크는 아이들이 장난감과 놀이기구 등을 체험하면서 창의력, 집중력,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꾸민 유·스퀘어의 어린이 전용공간이다.

영풍문고는 최근 키즈파크에 안전점프대인 원형 트럼폴린과 사각 트럼폴린, 생일파티를 할 수 있도록 파티룸을 신설했다.

영풍문고 유·스퀘어점 관계자는 “최근 실내 공간을 리모델링한 후 단체로 키즈파크를 찾는 어린이 고객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늘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보다 재미있고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현대·기아차 ‘첫차·경차’ 고객 이벤트

2030세대 엑센트·아반떼·투싼 등 구입 1년 내 맞춤 혜택

현대·기아자동차가 내수 부진 만회를 위해 첫차 또는 경차 구매고객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다.

현대차는 준중형 이하 승용차나 RV(레저용 차량)를 첫차로 구매한 2030세대를 대상으로 ‘헬컴 H-패밀리 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현대차는 이들 고객이 차량 출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혼, 자녀 출산, 차량 파손, 차량 수리 등을 상황을 경험할 경우 1회씩 맞춤형 혜택을 제공한다.

결혼할 때 웨딩카를 지원하고 자녀를 출산하면 축하 선물을 준다. 또 사고 차량의 특정 부품을 무료로 수리해주고 차량 수리 시 고객이 원하는 곳으로 찾아가 수리 후 인계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벤트 대상 차량은 엑센트, 아반떼,

아이오닉, 벨로스터, i30, 코나, 투싼이며 자세한 내용은 현대차 홈페이지나 전시장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아차는 모닝의 올 상반기 국내 경차 판매 1위를 기념해 ‘특별 구매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우선 이달 중 출고 고객은 5년간의 자동차세에 해당하는 4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키피 한 잔 값인 약 5000원을 내고 모닝이나 레이를 구매할 수 있는 ‘키피 한잔 할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1075만원짜리 모닝 베이직플러스 A/T 모델을 선수를 10%, 36개월 할부로 구매하면 만기 때 차량 가격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5%의 특별 금리를 적용받아 하루 약 5000원, 매월 약 15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연합뉴스

24/35PY 분양

소촌동 모아드림 1,2차 | 온세계 아이조움

분양 전환 계약금 500만원

대출 70% OK!

이자만 납부 OK!

청약 통장 NO!

즉시 입주 OK!

24PY

- 방 3
- 화장실 2
- 주방
- 거실

35PY

- 방 3
- 화장실 2
- 주방
- 거실

분양문의 (062) **610-9232**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